전주교대, '식목일 캠퍼스 캠페인' 행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환경 보호·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식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실내 온실 교육장(비닐하우스)을 활용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식목일 식물 심기' 체험활동과 교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물 심기 체험활동 및 식물 나눔 캠페인'이 운영됐다.

또한, 이진희(전주교대 실과교육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생활원예 기초 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은 "식물 심기 및 나눔 행사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참가자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인당도서관, 제12회 전자정보박람회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인당도서관(관장 김성필)이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재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전자자료 활용법 위한 '2024 제12회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총 10개의 국내·외 전자정보업체에서 참가하여 학회DB, 오디오북, 전자잡지, 이러닝, 전자책 등 인당도서관에서 제공중인 여러 전자정보서비스를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스스로 쉽게 다가가,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키우고 논문작성 및 과제수행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자료 이용방법 및 접근법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총 25명의 재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참가업체에서 지원하는 경품 이벤트에 선정되었다.

또한 호원대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경품을 준비하여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독상과 지역 문인들의 저서를 알리기 위한 독서 골든벨,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읍 농어촌공, '호숫길 쓰담쓰담'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4일 고부면 장문리 소재 석우저수지에서 수질개선 등을 위한 '호숫길 쓰담쓰담' 내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공사 및 유관기관 직원,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 및 고부면 일대 청정 용수공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공사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명보트 등을 이용하여 약 1.3톤 가량의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이건국 지사장은 "공사는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관리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를 학생 중심 대학의 원년으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 소통데이 행사로 학생들과 밀착형 소통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호프데이 행사와 천원의 아침밥, 중간고사 간식나눔 행사 등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에 나서며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한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올해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편안한 자리에서 경청하는 소통데이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3월 4일 개강 첫날 이른 아침부터 2024학년도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밀착형 소통을 이어간 양 총장은 한 달 만인 지난 4일 저녁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 총장과 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은 대학가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을 만났고,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정태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자치회 임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학생들은 양 총장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학생 복지와 관련한 건의 사항이나 평소 생각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양 총장과 학생 관련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메모했다.

정태현 총학생회장은 "앞으로도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올해를 학생 중심 대학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보다 가까이 학생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되도록 많이 들으려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치과병원 소아치과, 찾아가는 의료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양연미 치과의사 외 5명)가 지난 5일 김제제일어린이집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치과의사 양연미(소아치과)를 포함한 5명이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구강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평균 68.5%인 반면, 전라북도 5세 아동은 평균 76.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는 3-5세 어린이들의 구강 상태 파악 및 더 나은 구강 위생 관리 도모를 위해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김제원광어린이집을 시작으로 4월 5일에는 김제제일어린이집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총 6명(치과의사 4명, 치과대학생 2명)이 방문해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양연미 전북대병원 소아치과 의사는 "향후 김제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진 및 구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치과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치과진료, 불소도포 등 예방적 조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간호학과는 지난 5일 오후 2시에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촛불점화 의식을 통해 몸을 태워 주위를 밝혀주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사랑과 섬김의 돌봄을 실천하는 전인 간호인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숭고한 의식이다.

이날 행사는 박진배 총장, 한병수 선교신학대학원장, 의과학대학 원종임 학장, 간호학과 김미은 학과장을 비롯한 간호학과 교수, 대학 관계자와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곽청빈 학생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동기들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선서식의 마음을 잃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하였으며, 간호학과 3학년 56명은 촛불 의식과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했다.

/김재훈 기자

노인회 김제시지회, 제28회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지회장 이종선)가 지난 4일 노인대학생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노인대학(학장 유홍렬)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대학은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두 시간씩 진행된다.

1교시 노인전문 강사들의 특별 강의를 시작으로, 2교시에는 노래교실·생활체조·게이트볼 등 특별활동 시간과 현장학습 등으로 활동한다.

이종선 김제시지회장은 "작년보다 많은학생들이 참여하게 돼 기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함께 만나고 나누는 것이 교육이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도록 시작과 끝을 서로 동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찬준 부시장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노인대학의 학습 과정을 통해 더 큰 꿈을 만들어 희망차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SNS 기자단 팸투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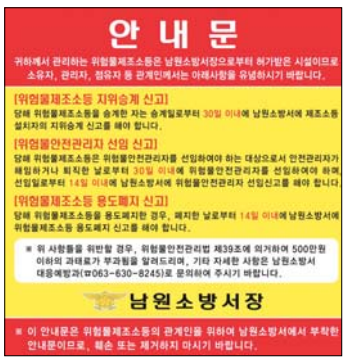
남원시는 지난 4일과 5일(1박 2일) 다양한 시각의 관광 홍보콘텐츠를 생산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블로그기자단과 국·내외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2024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김병종 미술관, 광한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지리산허브밸리 등 남원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각 관광지의 매력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내는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팸투어 참가자들은 남원시 공식 블로그 및 유튜브, 개인 SNS 등에서 남원 홍보와 더불어 제94회 춘향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위험물 안내문 부착



남원소방서가 관내 위험물 취급 및 보관을 허가받은 182곳에 위험물 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 부착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 시설은 △지위 승계 신고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4일 이내 △용도폐지 신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이를 사전 방지하고자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위험물 의무신고 위반으로 24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지위승계(13건), 용도폐지(9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과태료가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되어 관계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인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양순주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 안내문 부착으로 관계자가 자주 접함으로써, 자칫 간과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착한 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 5일, 관내 우성숯불갈비(대표 정선호)에 착한 가게 10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 착한 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만원 이상)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 나눔 실천을 약속한 가게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선호 대표는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 생각하던 중 이번 착한가게 참여를 통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서덕교 공동위원장은 "후원받은 기부금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특화사업에 사용하고, 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많은 가게가 나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이백면, 24개 경로당에 폐의약 수거함 설치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으로 면민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폐의약품 수거 '이백약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한 이백면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4개 경로당에 폐의약 수거함을 설치했다.

폐의약품은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한 배출 방법과 수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백면은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경로당에 게시하고, 1일 1가구 방문 시 면민들에게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며, 한 달에 1회 마을담당 직원이 폐의약품을 수거해 면 보건지소나 문화마을 백제약국에 분리배출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지숙)이 2024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위기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인 '위기탈출 넘버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기탈출 넘버원!' 사업은 지역 내 학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들의 위기 요소인 자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인권 피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육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4월 1일 진안읍 소재 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3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기탈출 넘버원!'을 통해 위기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